

나주시 '먹거리 관광 1번지' 도약 기반 조성 박차

남도음식거리 조성·나주밥상 브랜드화 등 정책 차별화 홍어거리 새단장·위생등급 특화 구역 등 음식문화 개선

나주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운병대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음식문화 발전을 목표로 남도음식거리 조성, 나주밥상의 브랜드화, 목사밥상 재현 등 다각도의 정책을 발굴해왔다. 대표 먹거리 발굴과 특색있는 음식거리 조성, 친절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선진 음식문화를 구축해 먹거리 관광을 500만 관광시대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500년 전통의 속성 홍어의 본고장인 나주 영산포 홍어거리를 다시 찾고 싶은 명품음식거리로 새단장에 나섰다.

총사업비 10억원(도비50%·시비50%)을 투입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스토리텔링 종합 안내판, 휴게쉼터, 홍어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환경정비(벽화 및 수목보호대) 등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흥어를 맛뿐만 아니라 보는 것으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조성과 더불어 외식업주들의 주체적인 위생·정결 실천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명품화 사업을 통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음식 거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선진 외식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 먹거리 브랜드인 '나주밥상' 지정을 통해 먹거리 관광 명소화에도 힘써왔다.

외식업주의 '건강, 안심, 배려' 3대 실천 서약을 통해 현재까지 음식점 36곳을 나주밥상 지정업소로 운영 중이며 올해도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나주밥상 지정표지판 부여, 음식 문화 개선 물품,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빛가람동 일원에 '위생등급 특화 구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관내 음식점 경영주 40명을 대상으로 6주 과정의 '제1기 수라클럽 아카데미'를 운영, 경영주들의 기본 역량과 경영 능력 향상, 경영 마인드 변화를 지원했다.

나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차별화된 먹거리 발굴과 전국 요리대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도 눈길을 끈다. 고유 음식문화 맥을 이어왔던 나주시 향토음식체



나주시는 2024년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 업무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결실을 거뒀다.

협문화관이 지난해 11월 재개관을 통해 음식·관광·문화를 융복합한 새로운 앵커스토어로 새 출발을 알렸다.

문화관에서 영산강과 나주평야의 풍부한 산물로 만든 독특한 음식 자원을 활용해 '목사밥상'을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선보인다. 목사밥상은 나주의 옛 지방 수령과 방백들이 임금께 바쳤다고 전해지는 고급 음식인 어필진미와 소팔진미에서 착안해 개발

한 1인 한상차림으로 기대를 모았다. 문화관은 목사밥상 체험과 더불어 로컬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락·밀키트·디저트 등 먹거리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나주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나주시는 지난해 2024나주영산강축제에서 '우리 가족 요리왕 선발대회'를 연계해 개최했다.

시는 대회 출품작에 대한 레시피북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나주 대표 음식 데이터 기반 구축 및 창업자 대상 창업 레퍼런스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 147개소(어린이 급식소 116개소, 사회복지 급식소 31개소)를 등록해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안전과 영양을 관리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신규 사회복지 급식소 33개소를 추가 등록·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등록 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자체 공동급식 경로당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돕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시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발굴한 정책 추진 성과에 힘입어 2023년 장려상에 이어 2024년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 업무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총 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이뤘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정책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힘써가겠다"라며 "맛과 건강이 조화로운 나주 음식문화의 우수성과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먹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노벨문학도시 탐방 프로그램 늘리고 인프라 확충

문학기행 중심지 조성 총력

장흥군이 문학관광기행특구와 노벨문학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문학 탐방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전국 초·중·고교 및 전남인재개발원에 문학탐방 안내자료를 배포했으며, 오는 13일에는 전남인재개발원 교육생 19명이 장흥 대표 문학 명소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노벨문학도시 장흥 한 달 여행하기', '문학·교육단체 연계 문학 기행 코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적 감성을 공유할 기회도 넓힌다.

한승원 작가 생가 복원, 문학 산책길 정비, 북카페 조성, 천관문학관 내 노벨문학 전시 공간 마련, 이정준 문학관 건립, 은하수르드내 문학거리 조성 등 문학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장흥은 수많은 문학인을 배출한 지역으로, 문학·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풍부한 문학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됐으며, 최근 들어 전국적인 문학 관광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승원 문학산책로.

지난해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의 딸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장흥을 찾는 문학 탐방객이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가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장흥이 대한민국 대표 문학 기행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민수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사업' 2년 연속 선정

위기가구 발견·안전망 강화

나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수행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앞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보호하고 가족 갈등 해소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나주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내 아동학대 위기가구 조기 발견에 주력하고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아동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양육 코칭,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도 주력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귀농어·귀촌 21가구 26일까지 모집

함평군은 올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교육모집 기한을 기존 12일에서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입교생들에게 숙소, 교육장, 시설하우스, 개별 텃밭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시설을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함평군 학교면에 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업 이론 및 실습 교육, 농촌생활 체험 등 귀농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생들은 보증금 100만원과 월 15만~20만원(숙소 유형별 상이)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입교 후 주소지 이전 여부와 전월 교육 이수시간 등에 따라 50%까지 교육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70세 이하이며, 도시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민 총 21가구(원룸형 12세대, 단독형 9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함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보고 입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담양군,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소년 돕는다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진로·학교 부적응 등 위기 예방 지원



담양군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사진)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과 청소년의 개인·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뿐 아니라 학업과 진로, 학교 부적응, 기층, 비행 등 잠재적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청소년 78명 발굴, 위기 사례 지원 102명, 고위험군 청소년 연계 지원 25회, 심리·주거·보호·돌봄·보육·안전지원 등 지원 서비스 3589회,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11명 등의 성과를 이뤘다.

손은아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장성 황룡면 배수개선 90억 국비사업 선정...2027년 착공

매년 반복되는 수해 해소 기대

장성군이 해마다 반복되는 황룡면 수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배수 개선 사업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 배수 개선 사업에 장성군이 선정,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

장성군은 황룡면 옥정리와 황룡리 일대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해 황룡면 배수 개선 사업을 제안, 기

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배수펌프장 2곳과 배수문 1곳을 설치하고 배수로 1.37km를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으로 인한 수해 면적은 73ha에 달한다. 올해 농축산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2027년 착공할 예정이다.

황룡강과 인접한 황룡면 옥정·황룡리는 우기 때마다 일부 저지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대규모 배수 개선 사업 추진이 절실했다. 장성군은 수차례 전남도·농식품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끝에 배수 개선 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국고 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계획대로 배수 개선 사업을 완료해 황룡면 일대 농경지를 침수 피해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출신 농협 임직원들 3년째 고향사랑기부금

11명, 화순군에 1000만원 전달

화순 출신 농협 임직원들이 3년 연속 군에 고향 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화순 출신 농협 임직원 11명은 지난 10일 구북구 화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재현 농협중앙회 상효금융 상무, 고성신 NH농협생명 부사장, 최우영 화순군지부장, 오인성 나주혁신도시 금융센터장, 황창주 한국농어촌공사지점장 등 7명이 참여했다.

화순 출신 농협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정재현 농협중앙회 상효금융 상무는 "매년 고향을 위한 작은 나눔이 화순군에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되면 농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를 이어온 농협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미가 큰 이번 기부가 화순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